

# 국어 영역

##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학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최근 학생들이 학교 산책로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산책로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오늘은 이 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학교 산책로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산책로 이용에 관한 교내 설문 조사에 따르면 산책로에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산책로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이 중 80% 정도는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버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산책로 조성을 위해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반대 1:**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근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쉼터에 쓰레기통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가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채 마구 뒤섞여 있고, 쓰레기통 주위도 지저분해져서 악취와 벌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통 설치에 반대합니다. 게다가 산책로에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면 누가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실 청소도 벅찬 상황에서 산책로 쓰레기통까지 관리해야 한다면 그것을 담당할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사회자:**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양측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반대 측부터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산책로에 쓰레기통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통은 산책로 바로 옆 매점에도 있으니 산책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 쓰레기통을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편의를 위해 쓰레기통을 설치한다고 해도 산책로가 깨끗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통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습관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되가져 가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책임 의식을 높이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버리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성 2:** ○○고등학교에서 쓰레기통 설치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통만을 설치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거울삼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재활용 쓰레기통을 함께 설치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급별 순번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기를 수 있어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위 토론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언 순서		분석 내용
사회자		문제 상황과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입론	찬성 1	설문 조사의 결과를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①
	반대 1	실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 후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다. .... ②
사회자		토론자의 발언 순서를 안내하며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③
반론	반대 2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상대방 발언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다. .... ④
	찬성 2	대안을 제시하며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 ⑤

2. 위 토론에서 ‘반대 1’과 ‘찬성 2’가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 ① 캠페인 실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② 인근 고등학교와 같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 ③ 쓰레기통 관리의 문제로 학생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 ④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학생들의 산책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 ⑤ 문제 해결을 위해 분리수거가 가능한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

3. 다음 자료를 위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례 1]

최근 □□ 공원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휴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몰래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요청과 편의를 고려하여 휴지를 비치한 것인데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습관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 측은 화장실에 홍보 문구를 붙여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례 2]

△△ 마을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운영하여 화제이다. 이 마을에서는 쓰레기장은 지저분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분리수거함에 꽃이나 캐릭터를 그려 넣은 결과 분리수거장의 청결함이 유지될 수 있었다. 또한 분리수거장이 모두의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주민들은 요일별로 청소를 분담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를 통해 애향심도 기를 수 있었다.

- ① [사례 1]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홍보 문구를 부착했다는 내용을,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반대 1’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② [사례 1]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방안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내용을, 쓰레기통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대 2’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③ [사례 1]에서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기존 쓰레기통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쓰레기통 설치의 의미가 없다는 ‘반대 1’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④ [사례 2]에서 쓰레기장이 지저분하다는 인식을 개선했다는 내용을, 재활용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찬성 1’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⑤ [사례 2]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여 애향심을 기를 수 있었다는 내용을, 학급별 순번제 도입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찬성 2’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4~5] 다음은 학생 발표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영수증을 들어서 보여 주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대답을 들은 후) 네, 맞습니다. 물건을 사면 받는 영수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영수증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저는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영수증에 담긴 경제 정보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영수증을 보시면 상품에 따라 ‘\*’ 표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이 표시가 있다면 그 상품은 단가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 것이고,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붙은 것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경우, 국내외 생산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 상품입니다. 가령 바나나 같은 상품이 이에 해당하죠. 반면 바나나 칩 과자는 향이나 맛을 내기 위한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과세 상품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자, 그러면 ㉠ 다음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까요?

영 수 증			
상품명	단가	수량	금액(원)
*오렌지(수입산)	1,000	4	4,000
*○○ 우유	2,000	1	2,000
□□ 딸기 우유	2,200	1	2,200
감자 맛 과자	1,100	1	1,100
과 세 상 품 :			3,000
부가가치세 :			300
면 세 상 품 :			6,000
총 구매금액			9,300

4. 위 발표에서 사용한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질문을 통해 화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핵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반언어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 ⑤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5. 위 발표를 들은 청중이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자 맛 과자’의 단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② ‘오렌지(수입산)’는 상품명 앞에 ‘\*’ 표시가 있는 것을 보니 면세 상품입니다.
- ③ ‘면세 상품’의 금액인 ‘6,000’원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 상품들의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 ④ ‘\*’ 표시가 있는 ‘○○ 우유’는, ‘□□ 딸기 우유’와 달리 가공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⑤ ‘부가가치세’ 금액인 ‘300’원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6~8] 다음은 주어진 작문 상황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글의 목적: 설득하는 글쓰기
- 예상 독자: 청소년 신문 독자

[초고]

최근 ‘노쇼(no-show)’라고도 불리는 ‘예약 부도’가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약 부도란 예약을 하고 아무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문에 우리 생활 주변의 다양한 업종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약 부도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소비자 개인의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소비자들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예약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약 부도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제 개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예약 부도의 증가가 다른 소비자들이 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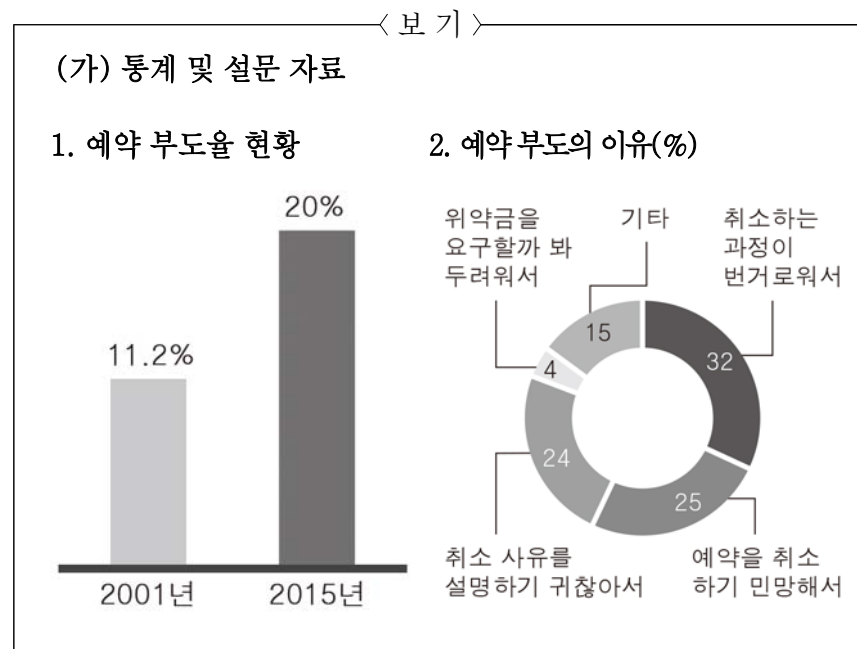
예약 부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소비자는 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예약 부도를 줄일 수 있도록 예약 부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사회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A] 이제는 예약 부도를 줄이기 위해 개인과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6. ‘초고’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생소한 용어를 정의한다.
- ② 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용한 내용의 출처를 밝힌다.
- ③ 화제와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한다.
- ④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제 발생의 원인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 ⑤ 논지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결책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이 자신의 ‘초고’를 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나) 연구 보고서

매년 한국의 음식점에서 예약 부도로 유발되는 연간 매출 손실액이 1조 8,030억 원, 그리고 이로 인한 고용 손실은 4만 3,45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약을 손쉽게 취소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미국 전역 50만여 음식점이 가입한 미국 레스토랑 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고객이 쉽게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SNS 예약 취소 채널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예약 부도율을 현저하게 낮추었다고 한다.

(다) 전문가 인터뷰

예약 부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약을 가볍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자신의 편의만을 추구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별 사업장에서는 계약금 지불, 위약금 부과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예약 부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지만, 예약을 잘 지킨 손님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① (가)-1을 활용하여 첫째 단락에서 언급한, 예약 부도가 증가했다는 사실의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예약 부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구체적 통계 자료로 제시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서 언급한, 예약 부도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 ④ (가)-2와 (나)를 활용하여, 취소 과정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예약 부도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의 하나로 예약 취소 시스템을 간소화하자는 내용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 ⑤ (가)-2와 (다)를 활용하여, 예약 부도의 주요 원인인 소비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8. <보기>는 학생의 ‘초고’에 대한 교사의 조언이다. <보기>에 따라 [A]를 고쳤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너의 초고를 보니 마지막 부분에 기대 효과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면 좋겠어. 그리고 전달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비유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 ① 누구나 예약 부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그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 예약 부도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 ② 예약 부도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장치를 보완하는 일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③ 예약 부도 문제는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④ 예약 부도가 줄어들면 소비자들의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 ⑤ 올바른 예약 문화는 우리 사회가 교양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다. 예약 부도가 줄어들면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신뢰가 형성되고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어 소비 생활이 윤택해질 것이다.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과제]

가장 의미 있었던 학교 활동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해 보자.

[작문 일지]

-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 : IT 멘토링 봉사 활동
- 쓰고 싶은 내용
  - 농부들의 모습을 보며 내 생활을 돌아봄. .... ㉠
  -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 나의 경험을 떠올림. .... ㉡
  - 할머니가 주신 고구마를 먹으며 우리 가족을 생각함. .... ㉢
  - 할머니가 보내 주신 메시지를 보고 감동을 받음. .... ㉣
  - 내가 한 활동이 물결을 일으키는 조약돌 같다고 생각함. ... ㉤

[학생의 초고]

어느 날 하룻길에 한 해의 결실을 수확하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내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 아무런 보람 없이 바쁘게만 지내 왔다는 생각에 ㉠ 텅 빈 공허함을 느꼈다. 그 순간, 오전에 학교에서 본 'IT 멘토링' 봉사 단위 모집 공고가 떠올랐다.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나 휴대 전화 사용법을 ㉡ 가리켜 드리는 일은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봉사 활동 첫날, 휴대 전화 사용법을 어려워하시면서도 열심히 배우고자 하시는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고등학교에 처음 등교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을 하나라도 더 알려 드리려고 노력했다. 그 날 이후로 할머니께서는 고구마도 챙겨 주시고 나를 친손자처럼 대해 주셨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나는 더욱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봉사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 내용은 손자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 고맙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의 감동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는다. 내가 알려 드린 작은 지식이 할머니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정말 뿌듯했다.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작은 조약돌이 잔잔한 호수에 물결을 일으키듯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 개인의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의미 있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휴대 전화는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미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 삶의 결실을 이루어 나가야겠다.

9. '작문 일지'에 기록한 내용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 ~ ㉤을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단어의 의미가 중복되었으므로 '텅 빈'을 삭제해야겠어.  
 ②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가리켜'로 고쳐야겠어.  
 ③ ㉢: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래서'로 고쳐야겠어.  
 ④ ㉣: 문장 성분 간 호응을 고려하여 '고맙다'로 고쳐야겠어.  
 ⑤ ㉤: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11. 다음은 표준 발음에 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3점]

학 생: 선생님, 저번 시간에 ㉠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셨으니 '막일'은 [마길]로 발음해야 하나요?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너, 뇨, 뉴]로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막일'은 [망닐]로 발음해야 해요.

학 생: 그러면 '막일'에서 '일'이 [닐]로 발음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막'은 왜 [망]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그것은 ㉢ 받침소리 [ㄱ, ㄷ, ㅂ]은 [ㄴ, ㅁ] 소리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되는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닐]이 아니라 [망닐]로 발음해야 됩니다.

학 생: 아,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제가 더 알아둬야 할 것이 있나요?

선생님: ㉣ [ㄴ] 소리가 첨가된 후, 이 [ㄴ] 소리가 받침소리 [ㄷ] 뒤에서 [ㄷ]로 발음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물약'을 [물략]으로 발음하는 것이 이에 해당해요.

	예	적용 내용	발음
①	눈 + 요기	㉠	[눈뇨기]
②	내복 + 약	㉡, ㉢	[내:봉낙]
③	색 + 연필	㉡, ㉢	[색년필]
④	들 + 일	㉡, ㉣	[들:닐]
⑤	칼 + 날	㉡, ㉣	[칼랄]

12. <보기>는 한글 맞춤법 수업 중 준말과 관련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 ㉠

예) 간편하게 → 간편케

**[붙임 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 ㉡

예) 아무렇다, 어떻다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이는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진 형태로 관용되고 있는 형식으로, 안울림소리 받침 뒤에서 나타난다. .... ㉢

예) 넉넉하지 → 넉넉지

- ① ‘다정하다’를 ‘다정타’로 적는 것은 ㉠의 규정을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분발토록’은 ㉠에 따라 ‘분발하도록’에서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ㄷ’과 어울려 거센소리로 된 결과이겠군.
- ③ ‘이렇다’를 ‘이러타’로 적지 않는 것은 ㉡의 규정을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무심하지’는 ㉢의 규정에 따라 ‘하’가 줄어진 형태인 ‘무심지’로 적을 수 있겠군.
- ⑤ ‘깨끗하지’는 ‘하’ 앞에 안울림소리 받침이 오는 것으로 보아 ㉢의 규정에 따라 ‘깨끗지’로 적을 수 있겠군.

13. <보기>는 문장 성분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활동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탐구 방법]**

- 특정 문장 성분을 생략할 경우 문장이 성립하는가를 확인하고 그 성분이 문장 구성에 필수적인지를 판단한다.
- 특정 문장 성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문장 내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한다.

**[탐구 대상]**

- 꼼꼼한 소윤이가 가위로 색종이를 잘랐다.
- 경민이는 옆집의 효빈이를 동생으로 삼았다.

**[탐구 결과]**

[ A ]

- ① ㄱ의 ‘색종이를’은 필수적인 성분으로, ‘잘랐다’라는 행위의 대상으로 기능한다.
- ② ㄱ의 ‘꼼꼼한’과 ㄴ의 ‘옆집의’는 필수적이지 않은 성분으로, 문장 내에서 동일한 기능을 한다.
- ③ ㄱ의 ‘소윤이가’와 ㄴ의 ‘경민이는’은 필수적인 성분으로, 문장 안에서 행위의 주체로 기능을 한다.
- ④ ㄱ의 ‘잘랐다’와 ㄴ의 ‘삼았다’는 필수적인 성분으로, 문장 안에서 주체의 행위를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 ⑤ ㄱ의 ‘가위로’와 ㄴ의 ‘동생으로’는 필수적이지 않은 성분으로, 문장 내의 특정 단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14.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생:** 안녕하세요? 인터뷰 때문에 원장님을 ㉠ 뵈러 왔습니다.

**직원:** 지금 ㉡ 계시긴 한데 혹시 미리 약속은 하셨나요?

**학생:** ㉢ 이틀 전에 제가 원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오늘 오라고 ㉣ 말씀하셨어요.

**직원:** 아, 그러세요? ㉤ 저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학생:** (노크 후 방 안으로 들어서며)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뵙기로 한 김○○입니다.

**원장:** 아, ㉥ 김 선생님 댁님이군요. ㉦ 지난번에 전화로 약속을 잡았었죠? 이쪽에 앉으세요.

**학생:** 고맙습니다. 그럼 그때 ㉧ 말씀을 드렸던 주제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 ① ㉠과 ㉡은 동일한 인물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 ② ㉢과 ㉤은 동일한 날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 ③ ㉥과 ㉦은 화자가 자신의 행위를 낮추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 ④ ㉧은 화자와 청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지시하는 표현이다.
- ⑤ ㉨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지 않는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15. <보기>의 ㉠ ~ ㉣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붉은 ㉠ 괴운이 명랑하야 첫 ㉡ 홍색을 헤아고 턱둥의 징반 갯흔 것이 수레박희 갯하야 물속으로서 치미러 밧치드시 올라붓흐며 향 독 ㉢ 갯흔 괴운이 스러디고 처엄 붉어 것출 빗최던 ㉣ 거스 모혀 소 혀터로 드리워 물속의 풍덩 ㉤ 빠디는 듯시브더라 - 의유당, 「동명일기」(1772년) -

**[현대어 풀이]**

붉은 기운이 명랑하여 첫 홍색을 헤치고, 하늘 한가운데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아서 물속에서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붙으며, 향아리, 독 같은 기운이 없어지고, 처음 붉게 걸을 비추던 것은 모여 소의 혀처럼 드리워 물속에 풍덩 빠지는 듯싶더라.

	탐구 대상	비교 자료	탐구 결과
①	㉠	기운이	‘괴운’과 ‘이’를 끊어 적었군.
②	㉡	홍색을	현대 국어와 같은 형태의 ‘을’이 사용되었군.
③	㉢	같은	현대에는 소실된 ‘ㆍ’가 당시에는 사용되었군.
④	㉣	것은	앞 글자의 받침 ‘ㅈ’을 거듭 적었군.
⑤	㉤	빠지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ㅅㅌ’이 사용되었군.



[16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리스어인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는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번역된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물질적인 것을 통해 느끼는 안락이나 단순한 쾌감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아를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다르게 설명한다. 그는 에우다이모니아를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완전하게 실현한 상태라고 규정하였다. 막스 뮐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우다이모니아에 시간적 속성을 부여하여 이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막스 뮐러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 ‘감각적 향유로서의 에우다이모니아’는 먹고 마시는 행위와 같은 신체적 감각을 통한 향유가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얻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정신과 신체의 통일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감각을 통한 향유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감각적 향유가 이성을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극단적 탐닉에 빠질 때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감각적 향유 자체는 찰나적인 것이므로 감각적 향유의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는 순간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둘째, ‘공동체적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는 공동체 속에서 인간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이성을 발휘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은 공동체의 훈육을 통해서만 개발될 수 있으므로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에우다이모니아를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공동체에서의 인간의 행위는, 수시로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에우다이모니아는 역사적 시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셋째, ㉡ ‘관조(觀照)의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는 인간이 세계의 영원한 질서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관조’란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향락적 활동이나 부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적 활동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영원불변한 진리를 학문을 통해 바라보는 영혼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에우다이모니아를 가져다준다. 이러한 에우다이모니아는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성을 갖는다.

뮐러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 실현되는 에우다이모니아는 모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는 에우다이모니아의 순간성, 역사성, 영원성이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므로, 인간은 전 생애에 걸쳐 이 세 가지 에우다이모니아를 함께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16. 윗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인들은 행복을 물질적 안락이나 쾌감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 ② 뮐러는 시간적 속성을 부여하여 에우다이모니아를 설명하였다.
- ③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에우다이모니아를 얻을 수 있다.
- ④ 관조는 쾌락과 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혼의 활동이다.
- ⑤ 뮐러가 설명하는 에우다이모니아는 서로 관련 없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1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감각적 향유의 과정에서 극단적 탐닉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실현된다.
- ② ㉡은 감각적 차원을 넘어선 질서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실현된다.
- ③ ㉠과 ㉡은 모두 이성의 발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④ ㉠은 ㉡과 달리 정신을 배제한 신체적 감각을 중시하는 가치 판단을 전제한다.
- ⑤ ㉡은 ㉠과 달리 시간적 속성에 있어서 순간성이 아니라 영원성에 의해서 규정된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김 씨는 고기가 정말 맛있어서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몫까지 다 먹어 버렸다.
- ㄴ. 이 씨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차를 자주 했는데 불법 주차 근절을 홍보하는 주민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후 자신의 습관을 고치게 되었다.
- ㄷ. 윤 씨는 모든 공식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불변의 수학적 질서를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수학적 공식들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 ① ㄱ에서 김 씨가 고기를 모두 먹어버린 행위는 극단적인 탐닉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ㄱ에서 김 씨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여 고기를 나누어 먹는다면 에우다이모니아를 실현할 수 있겠군.
- ③ ㄴ에서 이 씨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원인은 주민 회의가 공동체의 훈육으로 작용했기 때문이겠군.
- ④ ㄷ에서 윤 씨가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것은 궁극적인 에우다이모니아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ㄷ에서 윤 씨가 수학적 공식들을 활용하여 연구를 한 것은 수학 자체를 즐기기 위한 향락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군.

19. 윗글을 읽은 학생이 ‘뮐러’의 입장에서 <보기>의 ㉡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디오게네스는 일체의 물질적 욕심을 배제하고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만으로 살아가는 삶, 즉 자연에 따르는 삶을 통해 인간은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없애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지켜야 할 모든 사회적 관습이나 권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의 행복은 이와 같이 자유롭고 단순한 생활에서 비롯된다고 본 것이다.

- ① ㉡는 사회적 삶 속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책임을 간과하고 있군.
- ② ㉡는 단순한 생활에서 벗어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군.
- ③ ㉡는 인간이 이성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연을 변화시키는 것을 중시하고 있군.
- ④ ㉡는 역사적 상황의 끊임없는 변화를 인정하면서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군.
- ⑤ ㉡는 공동체 내에서 자유를 누린다면 물질적인 욕심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군.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공장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산업입지론이라 한다. 고전적 산업입지론에는 비용이나 수요 중 특정 요인 한 가지에 주목하여 가장 효율적인 입지를 설명하려는 최소비용이론과 최대수요이론이 있다. 하지만 비용과 수요 중 어느 한 요소만으로 공장의 입지를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 데이비드 스미스는 이들의 통합을 추구하며 준최적입지론을 제시하였다.

스미스는 자신의 이론을 총비용과 총수입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총비용이란 제품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인건비, 운송비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인 최적 입지로부터 공장의 위치가 멀어질수록 총비용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총수입이란 재화를 공급하여 생산자가 벌어들인 총액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최대화되는 지점인 최적 입지로부터 공장의 위치가 멀어질수록 총수입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총비용과 총수입을 모두 고려할 때, 총비용이 총수입보다 크면 손실이 발생하고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크면 이윤이 발생하게 되는데, 스미스는 총수입이 총비용과 ㉠ 같아서 더 이상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지점들을 이윤의 공간적 한계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공간적 한계의 범위 안쪽에서는 이윤이 최대가 되는 최적 지점이 아니더라도 이윤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공장은 어디든지 입지할 수 있다는 것이 준최적입지론의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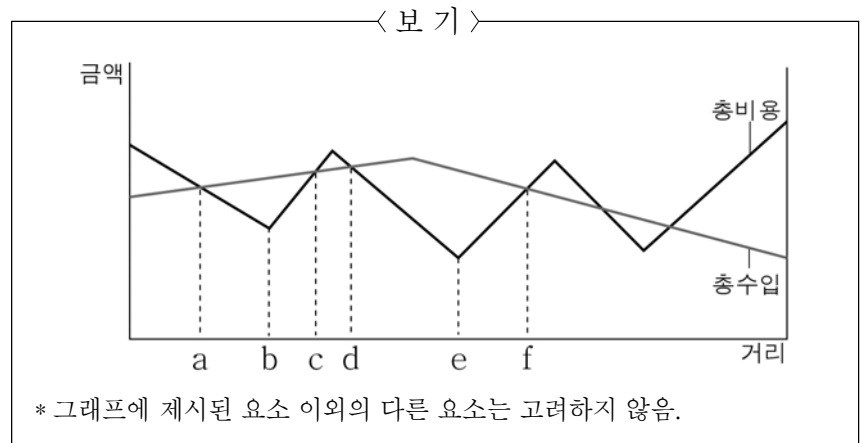
그는 이윤의 공간적 한계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요인은 경영자의 경영 수완으로, 경영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생산비를 낮춘다면 이윤의 공간적 한계는 그 전보다 넓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재정적 보조금이나 세금 등의 요인을 들었다. 공장이 보조금을 받으면 총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에 특정 지역에서 공장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면 총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공장이 입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 요인은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한곳에 모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생산 규모가 커지면 원료의 공동 구입, 제품의 공동 판매 등으로 총비용을 절감하여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결국 스미스의 이론은 비용과 수요를 통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과, 이윤의 공간적 한계 내에서 최적입지 외에도 실제로 공장이 입지해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산업입지론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 윗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총수입과 총비용의 개념
- ② 준최적입지론이 갖는 의의
- ③ 이윤의 공간적 한계가 변화되는 요인
- ④ 최소비용이론과 최대수요이론의 형성 과정
- ⑤ 최적 입지에서의 거리에 따른 총비용의 변화

21. <보기>는 거리에 따른 총수입과 총비용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를 통해 스미스의 이론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와 c사이 어느 곳에 공장을 세우더라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군.
- ② a에 공장을 세운다면, 이윤의 공간적 한계 지점에 공장을 세웠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d에 공장을 세운다면, c에 세웠을 때보다 총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윤이 더 적겠군.
- ④ e에 공장을 세운다면, b에 공장을 세웠을 때보다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가 더 크겠군.
- ⑤ e에 세우려던 공장을 e와 f사이에 세우려고 할 때 f에 가까워질수록 총비용은 늘어나겠군.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구를 생산하는 A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 지역 내 공장에 추가 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전을 고민하던 A 공장은 현재와 수요가 동일한 ㉡ 지역 내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지역 자치 단체에서 공장 부지 매입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점과 가구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영자는 A 공장을 이전하면서 경영 수완을 발휘하여, 생산 비용의 5%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 ① A 공장이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추가 부담금 때문에 총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 ② A 공장이 ㉡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경영 수완을 발휘하여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 ③ A 공장이 ㉡ 지역으로 이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세금 감면을 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A 공장이 총수입이 동일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공장의 입지 범위는 달라질 것이다.
- ⑤ A 공장이 같은 업종이 밀집하는 곳으로의 이동을 결정한 것은 원료 등을 공동 구입하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23.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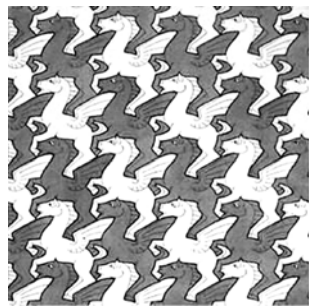
- ① 그의 마음은 비단 같다.
- ② 그와 나는 나이가 같다.
- ③ 내 친구는 정말 학생 같은 학생이다.
- ④ 날이 더워 마음 같아서는 물에 뛰어들고 싶다.
- ⑤ 연락이 없는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24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작가들과 달리 현대의 많은 작가들은 자신이 인식하고 해석한 세계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중, M.C. 에서는 기하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자기만의 새로운 인식을 표현한 작가이다.

에서는 먼저 ‘평면의 규칙적 분할’을 활용하여 2차원의 평면 구조를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우선 그는 세, 물고기 등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물들을 단순화하여 평면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기본 형태로 설정했다. 이것을 반복하여, 상하좌우로 평행 이동시키거나 한 지점을 축으로 다양한 각도로 회전시키기도 하고, 평행 이동한 후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반사시키기도 하면서 분할된 평면을 빈틈없이 채웠다. 또한 기본 형태를 점점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평면을 무한히 분할하는 듯한 효과를 주어 평면이 가진 무한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때 인접한 기본 형태들은 명도 대비\*를 이루며 윤곽선을 공유하면서 반복된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물의 형태를 인지



<대칭 105>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물의 윤곽선을 기준으로 그 윤곽선의 밝을 배경으로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서의 작품 ① <대칭 105>에서는 평행 이동하는 형태들의 윤곽선을 기준으로 흰 말을 사물의 형태로 인지할 경우 다른 색의 말은 사물이 아닌 배경으로 인식되고, 반대로 다른 색의 말을 사물의 형태로 인지할 경우 흰 말은 배경으로 인식된다. 이를

통해 에서는 어떠한 형태들이 배경이나 사물로 인식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선택에 의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어떠한 형태도 배경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는 평면 분할에서 나아가 3차원의 형태인 원통이나 원뿔, 구의 표면을 평면 분할 기법을 적용하여 분할하기도 하고, 이를 다시 평면으로 그려낸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더 나아가 하나의 작품 안에서 평면과 공간을 넘나드는 순환 체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2차원의 평면 분할에 활용된 기본 형태를 3차원의 실제 사물처럼 입체적으로 변형시켜 표현하고, 이를 다시 평면의 기본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2차원과 3차원을 넘나드는 새로운 차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에서의 작품에 사용된 평면의 규칙적 분할은 현재 다양한 제품의 디자인에 활용되고 있으며, 차원을 넘나들며 순환하는 환상적 공간 구성은 영화 및 광고 매체의 중요한 모티프로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에서의 작품 세계는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 명도 대비: 밝기가 다른 두 색이 서로의 영향을 받아서 밝은색은 더 밝게, 어두운색은 더 어둡게 보이는 현상.

2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에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기하학적 표현을 활용하였다.
- ② 에서는 평면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분할된 평면을 빈틈없이 채우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 ③ 에서는 기본 형태를 평행 이동한 후 거울에 반사시킨 것처럼 나타내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 ④ 에서는 평면 분할의 기법을 원통이나 원뿔 등의 3차원의 형태에 적용하기도 했다.
- ⑤ 에서가 사용한 기법들은 오늘날의 제품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다.

25. <보기>는 에서의 작품과 이에 대한 작가의 말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작가의 말 -

“자신이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한 마리 도마뱀이 스케치북에서 빠져나와 삶을 시작합니다. 도마뱀은 두꺼운 책, 미끄러운 삼각자, 정십이면체 등을 거쳐 평면의 세상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 ① 작품 속 스케치북에 표현된 도마뱀의 형태를 보니, 구체적인 사물을 단순화하여 기본 형태로 활용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군.
- ② 평면에 그려진 도마뱀이 실제 도마뱀처럼 입체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니, 새로운 차원을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군.
- ③ 반복되는 도마뱀 형태들에 의해 작품 속 스케치북의 일부가 규칙적으로 분할된 것을 보니, 평면의 구조를 표현하려 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군.
- ④ 명도 대비를 이루는 도마뱀 형태들이 윤곽선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니, 밝은색 도마뱀을 배경보다는 사물로 인식하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군.
- ⑤ 3차원의 형태로 표현되었던 도마뱀이 다시 2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 평면과 공간을 넘나드는 순환 체계를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군.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제시된 ①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프랙털 이론’이란 부분의 구조가 전체의 구조와 동일함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론이다. 예를 들어 번개는 언뜻 보면 그 형태가 불규칙해 보이지만, 일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번개의 전체 모습과 뻗어 나간 가지들 하나하나의 모습이 서로 닮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수학자들은 이것을 ‘프랙털 구조’라고 하며 하나의 모양이 무한히 반복되어 나타나는 ‘자기 복제’의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

- ① ①은 무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프랙털 구조’와 차이가 있군.
- ② ①은 기본 형태가 축소되고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프랙털 구조’와 차이가 있군.
- ③ ①은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었다는 점에서 ‘프랙털 구조’와 유사하군.
- ④ ①은 기본으로 삼은 어떤 형태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프랙털 구조’와 유사하군.
- ⑤ ①은 작품 전체의 형태가 기본 형태와 닮았다는 점에서 ‘프랙털 구조’와 유사하군.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화가 그 자물쇠 속에 이여백의 혼이 접하였음을 알고 읍내의 재변을 알고자 하니, 이화의 신기한 묘략과 덕을 알 수 있었다. 자물쇠를 앞에 놓고 크게 소리질러 이여백을 부르니, 이여백이 그 자물쇠 속에서 대답하였다. 원님인 이화가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내가 그대의 성명을 들으니 그대는 대국의 명장이라. 불행히 타국에서 난리 중에 몸이 죽으매 사람들이 차탄하는 바이어늘, 비록 혼백이나 녹록하게 마을 집 자물쇠 속에 들어가 짐승의 청을 들어 사람을 해치니 그대의 용렬함을 비웃노라.”

이여백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네 나라를 구하려고 만리타국에 왔다가 애매하게 난리 중에서 죽음을 만났으니, 이런 외로운 혼이 정처없이 헤매어 의뢰할 길이 없었는데, 이 집 자물쇠는 나이가 많아 가히 붙어서 머무르기에 마땅하였다. 머무른 지는 오래지 않았으니, 무슨 사람을 해함이 있으리오?”

이화가 이르되,

“내가 익히 보았는지라. 네가 문을 열어 짐승의 출입을 응하였으니, 이것이 사람을 해친 것이 아니냐?”

이여백이 말하기를,

“이 뒤의 연못에 만 년이나 묵은 자라가 있어 신기한 도술로 사람을 앓게 하며 괴로이 보채니, 이를 견디지 못하여 문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내가 구태여 사람을 해친 것은 아니로다.”

이화가 말하기를,

“너의 말은 최선이니 지루하게 말할 것이 아니나, 내가 단지 긴급하게 묻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 혼은 사양하지 말라.”

하고, 이어서 묻기를,

“내가 들으니 이 고을의 원님이 전후에 오는 이마다 죽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 반드시 무슨 요망하고 사악한 기운이 장난함이라.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이여백이 말하기를,

“내가 모르지 아니하나 이 사귀가 역만여 년 묵은 은행나무에 붙어서, 신기묘산이 천만 리에 끼치고, 능통한 요술로 온갖 귀신을 다 죽인다. 이러므로 고을의 원님이 많이 죽었으나 감히 내가 구하지 못하였나니, 이 사귀를 제어할 방도가 지극히 어려우니, 믿지 못할 너의 말과 의사가 부질없도다.”

이화가 이 말을 들으며 사태가 지극히 어려우나 끝내 알아내어 미연에 방지할 뜻을 두고 다시 묻기를,

“내가 비록 용렬하나 약간의 조치로 없앨 것이어늘 말을 끝장내고 묻지 아니함은 나를 업신여김이라. 빨리 이르지 아니하면 내 수중에 보검이 하나 있으니 네 혼령을 베리라.”

이여백이 말하기를,

“처음에 말하지 아니하매 이 일이 크게 어려운 줄을 알았을 것이어늘, 다시 물어 두려워하매 어찌 이르리오?”

이화가 매우 노하여 이여백의 혼령을 칼로 당당히 베고자 하였다. 이여백이 애걸하여 말하기를,

[A] “네가 나를 베고자 하니, 무릇 두 번 죽는 일이 없으나 너를 불행히 만나 괴로이 보채이는구나. 내가 말하지만 네가 처치를 잘못하면 나는 여기에 있지 못하고 너는 목이 베어 지리라.”

이화가 은근히 묻기를,

“좋은 피를 가르치면 어찌 당하지 못하리오?”

이여백이 말하기를,

“저 은행나무에 천여 년이나 묵은 여우 한 쌍이 있어 변화가 무궁하니, 이 고을 원님마다 죽여 그 피를 빨아먹으니 요술이 점점 더 신기한지라. 착실히 잡아야 할 것이니, 이 고을 백성들을 대령하여 많은 군졸로 겹겹이 진을 쳐서 사람마다 모두 활과 총과 창검을 장전하라 하고, 대툭과 큰 도끼로 나무를 베면 처음에 피가 낭자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잡귀라. 나무 끝에서 백발 노옹과 노파가 나올 것이니 역만 병사로 여우를 잡되 일시에 둘을 다 잡아내면 변이 없으리라.”

[중략 줄거리] 이화는 여우를 잡는 과정에서 노파로 변신했던 암여우를 놓치고 만다. 암여우는 이화에게 복수하고자 대국으로 건너가 황제의 애첩인 귀인(貴人)을 죽이고 그 몸을 빌려 이화를 모함함으로써 황제가 조선에 있는 이화를 잡아들이도록 한다. 대국으로 가던 중 이화는 이여백의 정령에게 황제를 만날 때 매를 소매 속에 넣고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조언을 듣는다.

귀인이 옆에 모시고 앉았다가 고하기를,

“조선 복색을 다 벗고 들어오라 하소서.”

상이 옷을 벗고 들어오라 하시니, 사관이 나아가 옷옷을 벗고 들라는 황제의 명을 일렀다.

이화가 눈을 부라리고 꾸짖기를,

[B] “나는 조선 예의국 사람이라. 조그만 조선에서도 옷을 벗고 뵈는 일이 없거늘 하물며 황제 만승지전(萬乘之前)에 옷을 벗고 뵈는 도리가 있으리오?”

㉠ 사관을 물리치고 점점 나아오니 귀인이 겹을 내어 말하기를, “이화가 저렇듯이 황명을 거역하니 지난날 꿈속의 일을 생각 사오면 어찌 흉악하지 아니하리이까? 빨리 장사를 시켜 옷을 벗기고 죄를 물으소서.”

황제가 그 말을 좇아 장사로 하여금 들어오는 문을 막고 옷을 벗겨 잡아드리라 하시니, 장사가 일시에 문을 닫고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화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비록 황상의 명령이 있으나 죽을지언정 옷은 벗지 못하리라.”

하고 손으로 모든 장사를 밀치고 정전에 들어갔다.

정전에 들어가니 황제가 귀비와 함께 앉아 계시거늘, 이화가 황상께 여덟 번 절하고 머리를 숙인 후 문득 소매에서 매를 내놓았다. 매가 바로 귀비의 머리에 날아가 앉아 두 눈을 쫓아 먹으니 귀비가 변하여 황금 같은 여우가 되었다. 황제가 대경失色(大驚失色)하여 좌우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우를 끌어내라 하고 겨우 정신을 진정하여 이화를 나아오라 하고 손을 잡고 연고를 물으셨다.

이화가 전후 사연을 자세히 주달하니, 황제가 차탄하고 상심하여 참담해 하셨다. 황제는 귀인이 여우에게 죽은 것을 슬퍼하여 여우의 주검을 조각 내어 귀인의 신위(神位)\*를 위하여 제문 지어 제하셨다.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이화의 신기한 도술이 아니었던들 거의 종묘 사직을 보전하지 못하고 천하 강산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감을 면하지 못할 뻔 하였도다.”

많은 신하들이 일시에 만세를 불러 축하하여 말하기를,

“이화의 신기묘산으로 커다란 화를 진정하였사오니 이는 폐하의 크나큰 복이로소이다.”

상이 전교하시기를,

“이화를 영능태수 무신후로 봉하라.”

하고 금은보화를 많이 주셨다.

— 작자 미상, 「이화전」 —

\* 신위(神位):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과 꿈을 교차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서술하고 있다.
- ⑤ 해학적 표현을 통해 내면의 갈등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권위를 내세우며 상대방의 굴복을 요구하고 있고, [B]는 동등한 입장을 확인하며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A]는 상황을 가정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B]는 당위성을 내세우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다.
- ③ [A]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상대방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고, [B]는 미래 상황을 예측하며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④ [A]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상대방의 동정을 이끌어 내고 있고, [B]는 상황의 다급함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⑤ [A]는 구체적인 근거를 내세우며 상대방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고, [B]는 대비되는 상황을 예로 들며 상대방의 행위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여우 변신 퇴치 설화’와 ‘정령(精靈) 재생 설화’를 수용하여 창작되었는데, 이때 ‘정령의 재생’이란 한을 지닌 혼령이 초목이나 물건 등에 붙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작품 안에서 ‘변신’과 ‘재생’은 상호 관련성을 지니며, 이를 통해 주인공이 현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드러난다. 다음은 공간과 인물을 중심으로 위 작품을 도식화한 것이다.

공간 인물	조선	⇒	대국	
이화	원님	⇒	죄인	
이여백	장군 → ㉠ 죽음	⇒	㉡ 재생 → 자물쇠	
여우	여우	⇒ ㉢ 변신	노파	⇒ ㉣ 변신
			귀인	

- ① 이여백은 ㉠을 겪은 후 외로운 혼으로 떠돌다가 대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를 이용했군.
- ② 이화는 ㉡의 상태인 이여백의 정령을 위협하여 고을 원님들이 죽은 이유를 알아내고자 했군.
- ③ 자물쇠를 이용하여 ㉡를 이룬 이여백은 ㉢의 주체로 인해 발생한 고을의 문제를 이화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군.
- ④ ㉢를 통해 노파가 된 여우는 자신을 해하려 한 이화에게 복수하고자 ㉣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군.
- ⑤ 대국에서 ㉣를 통해 귀인이 된 여우는 이화가 대국으로 이동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군.

34. ㉠의 상황을 <보기>와 같이 이야기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귀인은 이화가 자신에게 다가오니 (            )하고 있군.”

- |              |              |
|--------------|--------------|
| ① 전전긍긍(戰戰兢兢) | ② 오매불망(寤寐不忘) |
| ③ 기사회생(起死回生) | ④ 조변석개(朝變夕改) |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              |

[35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이고 애달플사 아이고 서러운지고  
끝없는 천지에 내 혼자 살아 있어  
에 있던 어채(魚菜)\*를 보니 내 마음 둘 데 없어라.

<전 1장>

처음에 잘못 생각하여 시서(詩書)를 일삼았도다  
중간에 망령되어 명리(名利)를 바랐도다  
물외(物外)\*에 풍월강산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전 2장>

이런들 뉘 옳다 하며 저러한들 뉘 외다\* 하료  
옳거나 외거나 나도 내 일 모르노라  
세상은 시비(是非)를 마라 어부(漁父)가 무엇 그르리.

<전 3장>

경륜(經輪)\*을 내 아더냐 세상 건질 이 없겠느냐  
태평시세(太平時世)는 얼마나 멀었는고  
필부(匹夫)\*의 위국충심(爲國忠心)을 내어 보일 데 없어라.

<후 1장>

내 나이 많거나마나 머리도 세었거나마나  
젊은 적 마음은 이승에 아니 늙었노라  
날마다 어린애 장난을 하니 더먹은 나이를 몰라라.

<후 2장>

푸른 산은 높고 높고 흐르는 ㉠물은 길고 길고  
산고수장(山高水長)하니 그 아니 좋을 소냐  
산수간 한가한 사람되어 허물 없이 사노라.

<후 3장>

— 이중경, 「어부별곡(漁父別曲)」 —

\* 어채(魚菜): 고기와 나물.

\* 물외(物外): 세상 밖.

\* 외다: 그르다.

\* 경륜(經輪): 천하를 다스림.

\* 필부(匹夫): 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내.

3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계절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대조적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36. 윗글의 ㉠과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 아니로다  
주야(晝夜)에 흐르거든 옛 물이 이실소냐  
인결(人傑)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논도다

— 황진이 —

- ① ㉠은 ㉡와 달리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② ㉠은 ㉡와 달리 화자에게 무상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 ③ ㉠은 ㉡와 달리 화자에게 과거와의 단절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 ④ ㉡는 ㉠과 달리 화자가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⑤ ㉡는 ㉠과 달리 화자에게 자연의 불변성을 깨닫게 하는 존재이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관직에 오르지 않고 자연에 은거하였던 작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즐거움뿐 아니라 슬픔도 노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작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이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한편 작품의 전장과 후장은 각각 대응을 이루고 있는데, 각 1장은 화자의 감정을, 각 2장은 시간성을, 각 3장은 현재 화자의 삶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전후 각 3장에서는 초장의 내용을 중장 전반부에 집약하고, 중장에서는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전 1장>의 ‘애달플사’와 ‘서러운지고’를 통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작가가 느낀 슬픔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을 알 수 있겠군.
- ② <후 1장>의 ‘경륜을 내 아더냐’와 ‘필부’를 통해, 관직을 경험하지 않은 작가의 처지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전 2장>에서는 ‘처음에’와 ‘중간에’를 통해, <후 2장>에서는 ‘젊은 적’과 ‘날마다’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내면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전 3장>에서는 ‘어부’를 통해, <후 3장>에서는 ‘한가한 사람’을 통해, 화자의 현재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전 3장>에서는 초장의 내용이 ‘옳거나 외거나’에, <후 3장>에서는 초장의 내용이 ‘산고수장’에 각각 집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군.

[38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자 네, 어떤 돌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듬어서 보석을 만  
들지요. (보석을 가리키며) 이걸 보십시오. 부인의 그이께  
서 밤새껏 다듬으신 겁니다. 참, 다시 없는 솜씨예요. 여  
든 여덟, 이 각면체(各面體)들이 서로 치밀하게 아물려  
서 한 점 빈틈이 없거든요. 부인, 이건 보석으로서의 가  
장 완전한 모양입니다. 일단 이 안으로 들어온 빛은 밖  
으로 절대 새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될수록 이 보석의 내부엔 자꾸만 빛이 축적되는 겁니다.  
마침내는 하늘에서 방금 뜬내온 별처럼 찬란하다 못  
해…… 그렇습니다, 부인. 이건 한낱 여인을 장식하기보  
다 저 장엄한 하늘의 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녀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저에게 지금 소중한 건 그이예요.  
어디게시죠, 그런?

남자 ㉠ 바람에 흩어지고 있군요.

그녀 제발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남자 그인 계약을 어기셨습니다. 보석을 이런 완전한 모양으로 다시 깎지 않겠다는. 그런데 그걸 어기신 겁니다. (보석을 내밀며) 사랑하는 부인에게 대신 이걸 전해 달라 하시더군요.

그녀 그이가 안 계신다면, 아, 이런 것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남자 진정하십시오, 부인, 이렇게 깎여진 보석은 세상에서 단 하나 이것뿐입니다.

그녀 하나라고요! 수천 개인들 그게 무엇일까요! (보석을 내던지며) 아무 소용 없어요, 저에게. 그이면 됐던 거예요.

㉡ 그이라면 다 황홀하게 꾸미고도 남았어요! 오, 차라리 저에게 재앙을 주세요! (비탄으로 울부짖으며 나간다)

남자 (보석을 주워들고) 쫓쫓, 인간들이란 가장 완전하며 가장 소용없는 걸 만든단 말이야. 난 이해 못 하겠어. 기껏 그들 꼴을 보며 웃는 수밖에. (키득키득 웃는다) 웃는 것도 싫군. 그저 이 돌을 하늘에 던져 올려 별이나 만들자.

(암전(暗轉). 울려 퍼지는 결혼 축하곡. 사원(寺院)의 종소리. 사람들의 환호성이 거리를 메운다. 그이는 창 밖을 바라본다. 노인. 구부러진 허리. 백발(白髮). 살갗은 고목의 껍질 같다. 그이는 한숨을 쉰다. 남자, 어느 사이에 들어와 구석진 자리에서 지긋이 한탄하는 그이를 지켜본다.)

[중략 줄거리] 자신의 일생을 바쳐 완벽한 보석을 세공한 ‘그이’는 보석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로 완성되었지만 그 보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온 자신의 현실을 한탄한다.

남자 참으로 묘한 일이군요. ㉢ 일생을 다 바쳐 마침내 바랐던 걸 성취하고서도 한탄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이 이 부질없는 것에 평생을 매달렸다니.....

남자 전혀 없습니까, 드릴 만한 사람이?

그이 있다면야 왜 내가 후회 하겠소? 보시오, 나를. 머리는 새하얗고 허리는 굽어 버렸소. 목소리는 쉬어터졌으며 살갗은 어느새 흉칙하게 찌그러졌소. 어리석다는 건 바로 이렇소. 차라리 이따위 걸 소망하기보다 한 여인을 사랑하는 쪽이 더 옳았던 것 같소. 더구나 오늘 거리엔 결혼식의 행렬이 지나갔소. 난 어여쁜 신부를 보았소.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소. 만약 나에게 다시 젊음을 준다면, 한번 다시 젊음을 준다면.....

남자 왜 말씀을 그만 두십니까?

그이 아, 그건 불가능한 거요.

남자 궁금한데요. 다시 젊음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이 한 여인을 사랑하겠소.

남자 글썄요. 그것 역시 결국엔 후회되지 않을까요?

그이 아니요. 난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요!

남자 사랑 역시 당신이 늘 소망했던 그 완전한 보석과 같은 거지요. 말하자면 당신은 한 여인을 완전히 사랑하고자 할 겁니다.

그이 물론이요, 나는.

남자 그렇다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당신은 그 여인에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보이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보석을 다듬어 주고자 할 겁니다.

그이 당연히 난 그럴 거요.

남자 아, 욕심도 많으시군요. ㉣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보석, 그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

니까? 그 중 하나만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셔야지요.

그이 (손 위에 놓인 보석을 바라보며)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난 이것을 기꺼이 포기하겠소.

남자 (냉소하며) 그랬다가 다시 만드시려구요? ㉤ 만약 당신이 터득한 그 완전한 형태의 보석 세공술(細工術)을 포기하신다면, 난 당신의 사랑을 위해 젊음을 다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이 누구요? 당신이 누구이기에 다시 젊음을 주시겠다는 거요?

남자 자,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이 당신이 설마.....?

남자 그것 보십시오. 당신은 후회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보석을 포기하진 못하는군요.

그이 (보석을 남자에게 내던진다) 젊음을 주시요!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남자 계약하셔야 합니다.

그이 종소. 어떤 계약이요?

남자 만일 당신이 이런 완전한 형태의 보석을 깎을 경우엔 당신은 늙어버립니다. ㉥ 그리고 그 즉시 새로 변해지고 말 겁니다.

그이 계약하겠소!

— 이강백, 「보석과 여인」 —

38. ‘남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이’의 행동을 부추겨서 ‘그이’의 선택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그이’의 상황을 전달하여 ‘그녀’와의 관계 회복을 유도하고 있다.
- ③ ‘그이’의 행동을 예측하여 ‘그이’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④ ‘그녀’의 태도를 비판하여 ‘그녀’의 내면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⑤ ‘그녀’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그이’와의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고도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보편적이면서도 실존적인 측면을 형상화하여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즉 현실적 가치를 상징하는 ‘보석’과 이상적 가치를 상징하는 ‘사랑’을 통해,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속성과 삶의 본질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계약 모티프’를 바탕으로 이야기의 결말 부분을 먼저 제시하는 원점회귀의 구성 방식을 취하면서 운명적 비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 ① ㉠과 ㉤을 통해 관객들은 결말 부분이 먼저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을 통해 관객들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군.
- ③ ㉢을 통해 관객들은 현실적 가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군.
- ④ ㉣을 통해 관객들은 인간의 보편적 속성을 떠올릴 수 있겠군.
- ⑤ ㉥을 통해 관객들은 인물들 간의 계약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40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술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등 등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었 골 골짜기서 울  
어 오는 뺨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 아  
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  
울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  
을, 충충충 달려도 와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뺨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나)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각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 이윽고 삭아 없어지고

큰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틔우고 꽃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 복효근, 「버팀목에 대하여」—

4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부르는 말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높임의 종결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광복 직후 이념 대립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분열되  
었던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  
정적 인식도 드러나 있지만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여 평화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태도도 드러나 있다. 또  
한 이 작품은 소멸과 생성이라는 순환적 자연의 질서가 내재된  
공간이자,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지닌 포용의 공간인 ‘산’의 속  
성을 바탕으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금빛 기름진 햇살’을 통해 산이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지닌 공간임을 알 수 있군.
- ②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을 통해 화자가 그리워했던 대상이 포용적 속성을 지닌 청산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③ ‘티끌 부는 세상’을 통해 분열과 대립으로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시선을 느낄 수 있군.
- ④ ‘달 가고, 밤 가고’, ‘빛난 아침 이르면’ 등을 통해 산이 소멸과 생성의 질서가 내재된 공간임을 알 수 있군.
- ⑤ ‘티어 울 밝은 하늘’, ‘너만 그리노라’ 등을 통해 긍정적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과 소망을 느낄 수 있군.

42. (나)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간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 ② ㉡은 ‘산 나무’가 ‘죽은 나무’ 덕분에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강조한 시어이다.
- ③ ㉢은 ‘산 나무’가 ‘죽은 나무’와 동일한 처지가 되는 시기를 드러내는 시어이다.
- ④ ㉣은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한 시어이다.
- ⑤ ㉤은 ‘산 나무’와 ‘죽은 나무’를 통해 ‘나’가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시어이다.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현의 아버지는 3·1 운동 때 일본 경찰의 총을 맞고 동굴에 피신하였다가 죽는다. 현의 할아버지 고노인은 풍수지리를 믿고 조상 일만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손자 현에게 지극한 관심을 쏟는다. 현은 일제 강점기 일본 유학 후 학병으로 끌려가 중국에 파병되었다가 탈주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평범하게 살고자 한다. 하지만, 월북했다가 6·25 전쟁 때 돌아온 친구 연호가 주도하는 인민재판에 분노하여 총을 난사하고, 동굴로 피신한다. 연호는 동굴 바로 앞에서 현의 할아버지를 인질로 잡고서 현이 투항할 것을 종용한다.

고노인은 또 한 번 ㉠ 동굴을 올라다보았다. 저 동굴 안에서 아들이 죽었고, 지금 또 손자가 저 속에서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자기도 또한 그것을 목격하며 위기의 순간에서 있었다. 이 야릇한 숙명적인 불행의 부합. 다시 고노인은 눈길을 선친의 산소에 돌렸다. 문득 이처럼 가혹한 숙명의 사슬에 영키도록 자기는 조상의 뼈를 묻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사—전쟁 앞에는 과거의 어떠한 원리도 무색해 지는 것일까. 혈통이 이어져 뻗어가는 기준의 상실. 골수에 젖은 풍수 원리를 굳게 믿고 **조상의 뼈다귀를 메고 다닌** 지난날의 노력의 공허.

그렇게 허탈해가는 고노인의 마음속에 차차 하나의 **새로운 감정**이 흘러들었다. 모두가 기정의 숙명에서 벗어나 있다는 해방감과 다음 순간의 운명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는 어떤 종류의 감동이었다. 그 감동 속에서 고노인은 팔십 평생에 처음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는 순수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결정했다.

‘이까지 용케 견디어온 가상할 자기의 팔십 생애. 산소의 탓도 목에 달린 복의 상징이란 혹의 탓도 아닌 맨주먹 알몸으로 기를 쓰며 살아온 팔십 평생, 나는 이것으로 죽한 것 지금은 가는 것이다. 현아, 이제 네가 살아야 한다.’

여울 같은 감동이 고노인의 전신을 흘렀다. 머리카락과 수염이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크게 숨을 들이모았다.

“현아! 너는 살아야 한다. 저 대포 소리를 듣거라. 어떻게든지 여길 도망해서……”

순간 고노인은 등을 꿰뚫는 불덩어리를 느꼈다. 중심을 잃고 풀썩에 쓰러지는 고노인은 총성의 메아리 속에 현의 절규를 들었다. 그리운 그 음성.

“할아버지!”

따각! 불발탄을 꼬집어내고 다음 탄환을 밀어 켜 현의 소총과 연호의 권총에서 동시에 불이 튀었다. 순간, 현은 왼편 어깨에 뜨거운 쇠갈고리의 관통을 느끼며 연호가 천천히 왼쪽으로 몸을 틀면서 숲속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

바위를 넘어 밑으로 내달리려던 현은 아찔하면서 그대로 바위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어깨를 움켜쥔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뿜어 나왔다. 땅으로 끌려들어가는 듯한 의식의 강하. 어깨의 고통—꼭 삼십 년을 살고 지금 여기서 죽어가는구나. 생각을 모아야겠다.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생각을, 생각을 모아보자. 이것이 한 인간의 삶? 삼십 년—어떻게 살았던가? 외면·도피, 밤낮을 가림 없이 도피·외면·도피. 그 밖에 무엇을 하고 지내왔는지 도무지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 첫번째 탄환처럼 불발에 그친 삼십년. 그것은 영(零)·산송장. 그렇다면 결국 **살아본 일이 없지** 아니한가.

나는 다음 탄환으로 연호의 가슴을 뚫었다. 사람을 죽인 것이

다. 남에게 손가락 하나 가뭇하지 않으려던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다. **가엾은 연호**. 연호와 나와는 아무런 원한도 없었는데. 인간이란 이래서 죄인이라는 것일까.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게 되는 인간의 불여의\*. 죄악을 내포한 인간의 숙명? 그것은 원죄?

우거진 ㉡ **꽃밭**의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죄 없다는 나 자신을 잠재우고 있을 때, 밖에서는 검은 구름과 휘몰아칠 폭풍이, 그리고 사람이 죽어 가는 비명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것은 먼저 네가 질러야 할 비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어린 병사 대신 네가 그 길가에 누웠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나 같은 인간은 아직 살아 있었고, 살아야 할 인간은 죽어갔다. 이런 것이 그대로 용허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가. 동굴에서 죽은 부친. 강렬히 살아서 아낌없이 그 생명을 일순에 불태운 부친. 부친은 살아남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었고,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 모른다.

저 숲속에 누운 할아버지. 시체가 아니라 그것은 삶의 증거. 모든 불합리에 알몸으로 항거하고 불합리 속에 역시 불합리한 삶을 주장한 피어린 한 인간의 역사. 거인의 최후 같은 그 죽음.

(중략)

껍질 속에 몸을 오므리고 두더지처럼 태양의 빛을 꺼린 삶.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있었다. 마치 돌멩이처럼. 결국 너는 살아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살아본 일이 없다면 죽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살아본 일이 없이 죽는다는 것, 아니 죽을 수도 없다는 안타까움이 현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공포의 감정을 휘몰아왔다. 현은 잃어져가는 생명의 힘을 돋우어 이 공포의 감정에 반발했다.

‘살아야겠다. 그리고 살았다는 증거를 보이고 다시 죽어야한다.’

현은 기를 쓰는 반발의 감정 속에서 예기치 않은 새로운 힘이 움터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힘이 조금씩 조금씩 마음에 무게를 가하더니 전신에 어떤 충족감이 느껴지자 현은 가슴속에서 갑자기 우직 하고 깨뜨려지는 자기 껍질의 소리를 들었다. 조각을 내고 부서지는 껍질. 그와 함께 거기서 무수한 불꽃이 튀는 듯했다. 그것은 다음 차원(次元)에의 비약을 약속하는 불꽃. 무수한 불꽃. 찬란한 그 섬광. 불타는 생애의 의욕. 전신을 흐르는 생명의 여울. 통절히 느껴지는 해방감.

현은 끝없는 푸른 하늘로 트이는 마음의 상쾌를 느꼈다.

‘**나머지 한 알의 탄환**. 것처럼 내가 살아남는 것이라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일까. 그것은 누구도 모른다. 먼저 나 자신이 선택할 것이다 다음은—그것은 더욱 누구도 모른다.’

분명한 한 가지는 외면하거나 도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든 정면으로 대하자.

도피할 수가 없도록 절박된 이 처지. 정면으로 대하도록 기어 이 상황은 바깥 내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미 꽃밭의 시대는 끝난 것이다.

— 선우휘, 「불꽃」 —

\* 불여의: 일이 뜻과 같이 되지 아니함.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인물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병치하여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③ 인물의 표정과 내면을 반대로 서술하여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6.25 전쟁에 이르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대응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작품 속 인물들은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기도 하고, 운명론적 가치관에 기대어 사회 현실보다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기도 한다. 한편 작품 속 인물들의 실존적 성찰과 인식 전환의 과정에서는, 집단적 가치에 의해 박탈된 개인적 가치에 대한 연민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인간애의 회복이라는 휴머니즘의 시각이 부각되고 있다.

- ① ‘조상의 뼈다귀를 메고 다’니는 인물의 행위는 사회 현실보다 개인의 삶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 ② ‘새로운 감정’에는 운명론적 가치관에 기대어 살아가던 인물의 인식 전환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 ③ ‘살아본 일이 없’다는 인물의 생각에는 지나온 삶에 대한 자책과 반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 ④ ‘가없는 연호’에는 전쟁이라는 집단적 가치에 의해 박탈된 개인적 가치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 ⑤ ‘나머지 한 알의 탄환’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군.

4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미래에 대한 인물의 낙관적 전망을 의미한다.
- ② ㉠과 ㉡은 모두 상황의 반전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 ③ ㉠은 냉혹한 현실을 부각하고, ㉡은 암울한 미래를 상징한다.
- ④ ㉠은 개인적 이상향을 의미하고, ㉡은 공동체적 이상향을 의미한다.
- ⑤ ㉠은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고, ㉡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외면을 상징한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